

11/24/19

설교 제목: 무조건적 감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하박국 3 장 16-19

(합 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절관주** 욥 30:17

(합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합 3: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찬송입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 무엇을 이루게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if 감사입니다.

둘째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떤 것을 이루어준 댓가로 하는 because 감사입니다.

세째는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in spite of,
Nevertheless 감사입니다.

다른 두 종류의 감사에 비해 무조건적 감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바로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린
무조건적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므낫세,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 왕들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고로 이 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악인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공의로 통치하지 않았으며 백성들을 착취하였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장들까지도 이권에 눈이 어두워 굽은 판결을 남발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그들은 완악하여 귀기울이지 않았고 악행을 계속했으며 정의는 짓밟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같이 남유다가 악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벌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아무 일없이 잘먹고 잘살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악함을 벌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급기야 솔직하고 용기있게 이 문제를 꺼내어 하나님께 여쭙기에 이르렀습니다.

(합 1: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합 1:3)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합 1:4) 이렇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주십니다.

(합 1: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합 1: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남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강포한 바벨론 갈대아인을 쓰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광포하며 완전하게 유다를 침공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답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기는 했지만 바벨론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쓰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되물습니다.

(합 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합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 2:5)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죽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합 2:8)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었도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도 바벨론의 악행을 알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은 무서운 심판으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죄를 지은 유대도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주권임을 선포하십니다.

(합 2:20)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다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웁기가 생각납니다.

욥은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죄가 없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서는 일절 침묵하시고 당신의 주권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욥 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 38:5)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욥 38:6)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잇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자 욥은 그동안 자신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 속에 품었던 의문을 접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합니다. 그는 장차 닥칠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의 침공이 두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를 극복합니다.

그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갈대아인을 들어 남유다를 치리라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심한 두려움에 쌓였다고 고백합니다.

(합 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이에 반해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위기를 맞아 나라를 이끌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그러나 이 절박한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합 3: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합 3: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산과 들과 밭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합 3: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 여호와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환난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남유다는 이같은 환란을 거쳐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하박국 선지자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 3: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지금 당장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실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 하박국 선지자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 3: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거룩하셔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없고 진지전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공의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권능이 없다면 공의를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자 동시에 권능의 하나님이지기에 당신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3.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 3: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합 3: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합 3: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합 3: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합 3: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화살과 창으로 밟아 멸절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4. 하박국 선지자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합 3: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은 하나님 일의 부흥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는 조건부 감사와 결과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환란 속에서 고통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경우에 해당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 감사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을 수 밖에 없는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없이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도록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세상에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 줄 사람은 더욱 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nevertheless)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그리고 본문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